시편 102 편

읽으며 묵상하기[1] 성경 말씀을 소리 내어 읽고 설명을 참고하여 함께 묵상해 보세요.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3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 같이 탔음이니이다
4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 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6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8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혼자가 아니다 여기 온갖 종류의 고난이 적혀 있습니다. 연기에 타고(3 절) 육신은 소진됩니다(4 절). 불면(7 절), 식욕 저하(4 절), 주체할 수 없는 눈물(9 절)을 비롯한 우울증의 조짐들이 보입니다. 거절감과 고립감이 너무도 절절했던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폐가에 깃든 외로운 부엉이에 빗댔습니다(6 절).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이 필요합니다. 안락한 환경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처지에 몰린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짐을 나누어지도록 이끌어 줍니다(갈 6:2). 하지만 대부분은 시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들에게,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예수님을 포함해 다른 이들이 나란히 걸으며 함께 난국을 헤쳐 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알려 줍니다(23-27 절).*

YOU ARE NOT ALONE. Suffering in all its aspects is depicted. There is burning with fever (v3) and physical wasting (v4). There are the signs of depression, including sleeplessness (v7), lack of appetite (v4), and uncontrollable weeping (v9). The psalmist feels so rejected and isolated he likens himself to a solitary owl in a ruined house (v6). We all need this psalm. It helps those in comfortable circumstances to enter into the pain of the troubled and share their burdens (Gal 6:2). But most of all it helps anyone feeling like this to see they are not alone, that others including Jesus himself (vs23–27) have been there and came through.*

[1] 팀 켈러, 시편 묵상

12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14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15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6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끔찍한 재앙이 닥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16 절, 20 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당장(13 절) 시온을 회복시키셔서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16 절).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지만 결국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곧바로도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체화된 응답의 면모는 시인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했습니다(히 12:12-28).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왕상 19:4)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어리석게 굴지 말거라. 넌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응답받지 못한 기도란 없습니다. 언뜻 "안 돼!"라든지 "아직!"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NO UNANSWERED PRAYER. A disaster has left Jerusalem in ruins and many imprisoned (verses 16 and 20). The psalmist prays for God to restore Zion to a glory the whole world can see (verse 16)—now (verse 13). That did not happen. Unanswered prayer? Not really. God's answer was "Not now, and not the way you think." The answer, through Jesus, was far greater than he could have imagined (Hebrews 12:12–28). Likewise, when Elijah prayed to die (1 Kings 19:4), the answer was "Don't be silly, you are not going to die at all!"99 There is ultimately no such thing as unanswered prayer. If the answer at first is "no" or "not yet," it is because he gives us what we want in ways better than we asked.**

생각해 볼 질문들

1.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나요? 또는 극구 '나는 이 고난 중에 혼자이다'라는 생각을 고집하는 일은 없나요? 그런 고집이 나와 주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2.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이 형식적으로 다가오는 적은 없나요? 언제 그런가요? 또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신 방법을 받아들이기까지 나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3. 오늘 시편 본문과 나눔 중에서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장기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나의 말로 기도하기 아래 기도문을 읽어보고 오늘 묵상과 나눔을 보태어 나의 말로 기도해 봅니다.

vv. 1 – 11

주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겁이 납니다. 시인과 같은 고통을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처럼 형편이 곤란한 이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악합니다. 나를 위해 자원해서 한없는 고통을 겪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덕분에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역경에 맞설 수 있습니다. 역경에 맞선 다른 이들까지 도우며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Lord, the realism of your Word scares me. I don't want to believe that I might go through pain like this. And I avoid people who are. That is wicked of me. Lord, you suffered infinitely, voluntarily for me. So I can face affliction—and help others face it—with you. Amen.

---

vv. 12 – 17

주님이 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내게 위안이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분명 나의 잘못입니다. 선하고 행복한 삶이란 정확히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확고한 고정관념을 가진 탓입니다. 주님의 슬기로운 사랑은 "주님으로 오히려 나를 먹이십니다. ... 주님, 땅 위에 스스로 세운 바보들의 천국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야 영원히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아멘.

Lord, I confess that your promise to always hear prayer (verse 17) is of little comfort to me, and it's my fault. I am so sure of exactly what a good and happy life must look like. Remind me that sometime your wise love "feeds us with hunger. . . . Lord, spoil my fool's heaven on earth, that I may be saved forever."[2] Amen.

---

[2] Samuel Rutherford, *The Letters of the Rev. Samuel Rutherford* "사무엘 러더퍼드 목사의 편지"